



그리스도인과 대학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복음에 순종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필수적이다.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된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고등교육의 장을 통해서 정교화되어야 하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신앙공동체가 기독교대학을 소유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대학은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통제는 물론, 변화하는 세계의 세속적 문화와 이념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빈약한 세계관적 기초, 교권의 위협, 그리고 열악한 시설과 재정 문제 등의 시련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 기독교대학의 본질

흔히들 기독교대학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대학은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에 학문의 공동체라고 한다. 기독교대학이 신앙의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만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슬람대학이나 불교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동체이다. 인간은 본질상 종교적인 존재(religious being)이다. 모든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거짓된 우상을 경배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문제는 어떠한 신앙이냐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의 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II. 기독교대학의 발전 방향

1. 기독교대학은 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간사회에는 가정, 학교, 교회, 정당 등 여러 사회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은 창조질서에 속하는 제도이며, 여타의 모든 제도들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들은 각각 그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지배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아래서 그 자체의 기능을 고유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대학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독특한 과업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 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국가나 교회, 또는 사회의 기타 여러 기구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합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나 교회가 아니라 대학이다. 교육은 교회나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이 세속적으로 합리적이 되거나 단순히 자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영역으로 하여금 교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역과는 확실히 다른 비판적 성찰, 과학적 탐구, 그리고 교육적 책임성을 개현해 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기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대학은 외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사되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대학은 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성장해 나가야 한다.

2.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어 비판하고, 학문을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사회의 문화와 대학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이다. 대학의 중추적인 활동이 종교적 중립성의 관점에서부터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의 실제적인 활동은 그리스도인, 불교,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모두 함께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통의 근거 위에서 만나는 세속적 삶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대학이란 일반대학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몇 가지 기독교적 활동들을 단순히 추가하는 정도의 대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북미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소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대학과 학문단체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대학과 단체들은 거의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 또는 “성경과 과학의 통합”에 대한 헌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 사용되는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같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중립적인 과학적 사실(neutral scientific facts)에다가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기독교적인’ 교육이란 고작 전통적인 세속 학과에다가 필요한 신학 과정이나 성경 공부 과정을 추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연구의 사실들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포장해 주는 정도에서 만족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독교대학은 소위 “중립적”인 사실(neutral facts)에 기독교적인 가치(Christian values)를 단순히 추가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서는 참되게 성경적인 학문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은 과학적 사실에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한다던가 성경과 과학을 “조화”

(harmonizing)시키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학문을 보는 과학자”(the scientist viewing science through the spectacles of Scripture),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the scientist engaging in scientific activ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더 좋아한다.

학문의 내적,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고, 나아가 창조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기독교적 학문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 과학자가 자신의 학문활동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과업은 계속적인 과업이다. 우리의 학문활동은 계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의 개혁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인 관점(Christian perspective)에서 창조세계의 다양한 구조와 조직을 조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지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러한 학과목의 가르침에 기독교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추가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고 학문 자체를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소명과 역할에 신실할 수 있다. 기독교적 헌신의 일반적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에 단순히 스며드는 정도로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각 학문을 형성하는 종교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모든 강의실이 종교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다. 생물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의 가르침을 종교과목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학

문의 내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본질과 구조를 지키면서 학문 자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3. 기독교대학은 구성원들의 동일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세계관은 인간활동의 근본적 기초이며 방향잡이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공동체의 통일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휘파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카이퍼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은 일관되고 통합적인 세계관, 즉 강력한 기독교적 삶의 체계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이것은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수진은 반드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학생들과 매일매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신앙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실에서 그리고 학문공동체 안의 여타 활동 속에서 교수들은 일관된 기독교적 관점을 견지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기독교적 신앙과 관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이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변증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목의 특색을 희석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경건성과 학문성을 동시에 지녀 기독교적 학문을 할 수 있는 자

라야 한다. 즉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기독교인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학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교수진이 심오하게 헌신되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독교대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수 채용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점에서 많은 희석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교수 임용이 흔히 큰 압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과운영을 위해 즉각적으로 공백을 채워야 할 압박감이 있으며,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압력이 있다. 즉 그 학과의 학문적 위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 하에서 운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심을 핵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기독교적 특색을 대가로 치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수가 없는 당혹감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면학과 알찬 신앙적, 인격적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공부과정이 단순히 세속적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하신 일생의 과제를 찾도록 힘쓰며 그 찾은 일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직원 역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학교의 일상생활은 행정직원에게 의해서 영위되며, 또 많은 점에서 행정직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독특하게 기독교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 직원들은 방관적 무관심과 편의주의적 안일성, 또 사무적 냉냉함을 버리고 자신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그의 나라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확장되어 감을 확신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와 감사가 있는 성실과 기쁜 마음의 섬김으로 그 과업에 임해야 한다. 만약 행정직원이 기독교적 증거에 실패한다고 하면 대학의 기독교적 특색이 희미해지게 된다.

기독교대학은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후원집단(이사회, 교회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대학의 제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교수요원과 행정직원들을 채용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직분은 학교의 기본적인 종교적 방향(religious direction)을 분명히 하고, 교육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들을 공급하며, 학교의 일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격을 구비한 자들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이사회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의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4.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negative)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positive)인 자세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대학은 온실처럼 세상과 여타 다른 교육기관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이념은 창조세계에 대한 탐구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보다는

교리와 신앙을 주입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상 종교적이며 모든 학문 활동이 종교적이라면, 기독교적 학문만이 유별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공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수용하여 학문의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신앙과 학문은 언제나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대학이 제기해야 하는 유일하게 참된 질문은 어느 신앙을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와 학문(과학)(religion and science) 또는 신앙과 학문(faith and learning)이 아니라 종교 대 종교, 과학 대 과학, 신앙 대 신앙, 학문 대 학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III. 기독교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 과제

1.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현장은 특정 개인이나 위원회의 탁상공론적인 추상적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고백적 신념으로 정교화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적인 고백적 관점(educationally confessional stance)은 학문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자유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2. 기독교대학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그 프로그램의 발전에 있어서 칼빈(J. Calvin), 바빙크(H. Bavinck), 카이퍼(A. Kuyper), 볼렌호븐(D.H. Th. Vollenhoven), 도예베르트(H. Dooyeweerd) 및 기타 여러 나라의 독특한 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의 정신을 건설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이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공헌을 인정하면서 부단한 개혁과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지배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교수-학습, 그리고 참된 '영성의 옥토', 예컨대 자유, 분별, 희망, 확실성 등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의 포스트모던 세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기독교대학에는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Teaching Christianly), 연구,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한다.

5. 기독교대학은 삶의 여타 영역, 예컨대 농업, 기업, 예술, 초중등학교, 노동, 정치, 매스 미디어, 교회생활 등에서의 기독교적 개혁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공동체 일반에서 순

종적인 규범 실현의 동시성을 기대할 수 있다.

6. 기독교대학의 모든 내적 구조(학문활동, 교수활동, 교육과정, 행정 등)는 창조 실재에 대한 통합적이며 언약적 관점을 내포하고 반영해야 한다.

7. 기독교대학은 그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국외의 기독교고등 교육기관, 그리고 전 세계의 자매기관들과의 밀접한 협동적 노력을 격려하고 조장해야 한다.

8.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9.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대학은 교회지도자와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독교고등교육기관 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대학과 성경학교, 또는 신학교는 분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대학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권주의의 위험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IV. 맺는 말

인본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21세기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대학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표명하면서 기독교대학이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의 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신앙이라는 확고한 기초를 상실해 버리거나 아니면 학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신앙은 삶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신앙은 주일 하루 또는 인간 삶의 어느 한 영역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방향 지우며 동기 지우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을 그 확고한 기초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대학으로서의 학문적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다른 어떠한 대학들보다도 더 낡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모습을 상기할 때 항상 열악한 시설 환경 속에서 협의적이고 도그마적인 의미의 경건을 강조하는 소리만이 연상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대학을 발전시켜나가되 언제나 독특한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학문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